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寬植

# 文房冊架圖 臨模研究

A study of artistic replication of the  
"Munbang Chaekado"(the pictures of the books)

2006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 畫 科

傳統真彩畫傳攻

李 昌 珉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寬植

## 文房冊架圖 臨模研究

A study of artistic replication of the  
"Munbang Chaekado"(the pictures of the books)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 年 12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 畫 科

傳統眞彩畫傳攻

李 昌 珉

李昌珉의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 年 12 月

심사 위원장 정하영 (인)

심사 위원 홍금희 (인)

심사 위원 姜寬植 (인)

## 국문 초록

책가도(冊架圖)의 등장은 18세기 후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양반층이 확대되고 청(淸)과의 교류로 인해 외래 문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장식품과 서양화법 등에 대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장르의 그림이 생겨났으나 곧 우리의 미의식이 반영된 우리의 독특한 책거리를 그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책가도는 궁중회화(宮中繪畵)의 한 부분이기도 했고, 후에는 민화(民畵)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한 그림이다. 또한 서양화 기법을 도입하여 발전하다가 우리의 미의식에 맞게 다시 태어난 그림이기도 하다.

이번 임모작은 민화적 요소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통회화와 민화, 서양기법과 동양의 미의식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화적인 상징물과 문기(文氣) 짙은 물건들을 서로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책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궁중책거리와 민화책거리의 다른 점은 우선 궁중책거리는 세련되고 고아한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서 문기(文氣)가 짙게 느껴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책거리는 궁에서도 장식화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화려한 측면보다는 정적이고, 웅장한 느낌의 장식화로 그려졌다. 반면에 민화책거리는 장식성을 많이 추구하여 화려하면서도, 질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점(多視點)을 이용한 우리의 미의식이 궁중회화 보다 더 많이 가미된 양상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전에 궁중회화의 맥락에 속하는 ‘이형록(李亨祿)’의 ‘책가도(冊架圖)’(호암미술관 소장)를 임모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이와 다른 양상의 책거리를 임모해 봄으로써 책거리의 흐름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책가도의 의미와 연구목적, 표현양식에 대해 약술한다.

둘 째, 임모과정에 있어 원화의 전사과정을 설명한다.

셋 째, 선 연습을 통한 선묘에 대한 이해과정을 설명한다.

넷 째, 원화의 색감, 안료(顔料)를 찾아내기 위한 색표제작과정을 설명한다.

다섯 째, 실제 임모작업 과정을 통한 제작기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책거리를 포함한 전통진채화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국문초록

|                         |    |
|-------------------------|----|
| I. 서론.....              | 1  |
| 1. 문방책가도의 의미와 연구목적..... | 1  |
| 1) 문방책가도의 의미.....       | 1  |
| 2) 문방책가도의 연구목적.....     | 3  |
| 2. 문방책가도의 표현양식.....     | 4  |
| II. 문방책가도의 임모과정.....    | 5  |
| 1. 임모 준비과정.....         | 5  |
| 1) 전사(傳寫)과정.....        | 5  |
| 2) 순지 염색하기.....         | 7  |
| 3) 교반수(膠礬水) 칠하기.....    | 10 |
| 4) 선긋기 연습과 색표제작.....    | 14 |
| 2. 임모제작 과정.....         | 16 |
| 1) 상초(上草)하기.....        | 16 |
| 2) 1차 배접하기.....         | 18 |
| 3) 2차 교반수 칠하기.....      | 21 |
| 4) 채색 올리기.....          | 22 |
| 5) 가필하기.....            | 28 |
| 3. 세부묘사 과정.....         | 29 |
| 4. 표구하기.....            | 36 |

|             |    |
|-------------|----|
| Ⅲ . 결론..... | 38 |
|-------------|----|

## 도 판

|                                                                            |    |
|----------------------------------------------------------------------------|----|
| 그림1. 이창민, <이이장(李彝章:1708~1764) 상>(종가 소장) (임모),<br>2003, 비단채색, 142×82cm..... | 40 |
|----------------------------------------------------------------------------|----|

|                                                                        |    |
|------------------------------------------------------------------------|----|
| 그림2. 이창민,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호암미술관 소장) (임모),<br>2004, 종이채색, 420×140cm..... | 41 |
|------------------------------------------------------------------------|----|

|                                                                    |    |
|--------------------------------------------------------------------|----|
| 그림3. 이창민,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개인 소장) (임모), 2005,<br>종이채색, 172×90cm..... | 42 |
|--------------------------------------------------------------------|----|

|           |    |
|-----------|----|
| 참고문헌..... | 43 |
|-----------|----|

|               |    |
|---------------|----|
| ABSTRACT..... | 44 |
|---------------|----|

# I. 서론

## 1. 문방책가도의 의미와 연구목적

### 1) 문방책가도의 의미

책가도를 순 우리말로 '책거리'라 한다. 책거리 그림의 전신은 기물도(器物圖) 또는 기명도(器皿圖)라고 부르는 그림인데, 탁장(卓穢)을 그린 기물도는 실제 기물이 전해지고 있다. 명칭은 이 외에도 다양하여 서가도(書架圖), 문방도(文房圖), 책탁문방도(冊卓文房圖)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책거리 그림은 조선후기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양반층이 확대되고 청(淸)과의 교류로 인하여 들어오는 각종 서적과 문방구가 적극 수입되어 그것들을 소재로 삼은 그림이 그려지며 시작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방을 꾸미는 장식화(裝飾畵)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가도가 지닌 상징성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 의식이나 관리로서의 출세를 바라는 기복(祈福)의 의미를 담고 있다. 책가도는 원래 화원화가(畵院畵家)들에 의해 궁중장식화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수요가 늘어나 일반인에게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변용되었다. 초기에는 서가(書架)로 구획된 화면에 서책과 골동(骨董)등이 등장하였으나, 시대가 내려갈수록 서가와 서책의 비중이 적어지고, 정물화처럼 자유로운 구도로 그려진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길상(吉祥)의 상징물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문방책가도에 잘 나타나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류와 재액(災厄)을 떨친다는 의미의 갖가지 기물들, 그리고 선비들의 방에서 볼 수 있는 일상 용품들이 정감 있고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예를들면 술병과 술잔, 주전자, 찻잔, 바둑판, 담뱃대, 부채, 시계, 등잔, 촛대, 꽃병, 대접, 단지, 약그릇, 향아리, 괴석, 분재, 화분, 활, 화살통, 지팡

이, 안경, 거문고, 가야금, 단소, 대금, 생황, 해금 등은 물론이고, 여자의 치마, 꽃신, 쪽두리나 식물, 동물, 꽃, 과일, 물고기, 기린, 해태, 사불상과 같은 영수, 수박이나 오이, 참외, 유자, 복숭아, 석류, 가지, 불수 같은 것이 그것이다.

판소리 한마당인 '홍보가'의 사설에서 홍보가 부자가 된 후에 사랑방을 치장하는 대목을 보면 조선 시대 선비들이 갖추고 싶어한 서적은 무엇이었고, 문방구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책거리 소재로 사용되던 내용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치레 더욱 좋다. 보료 장침, 호피 담요, 용목 패상, 벼루집, 화류문갑, 각계 수리, 용연, 거북연적, 대모책상, 호박필통 황홀하게 벌여놓고 천은(天銀;품질이 제일 좋은 은) 수복희자(壽福禧字) 서랍, 연죽(烟竹;담뱃대) 매어 걸어 놓고 오동 복판 거문고는 고조(古調)가 흘러난 듯. 서책을 헤아보니 천자(千字), 추구(抽句), 동몽선습, 사략, 통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전, 서전, 주역, 춘추, 예기, 두시, 당시, 명송시며 그 밖에 여러 외전(外傳) 질질(軋軋)이 쌓였는데 그 곁에 대모안경 놓고 진묵(眞墨), 당묵(唐墨), 순황모, 무심필을 산호필통에 꽂았었다. 각색 지물(紙物)이 또 나온다. 탁곡지, 별백지, 간지, 주지, 태지, 피지, 도벽지, 유지, 갈모, 유삼, 바깥 장안에 쌓아 놓고..."

이렇듯 사랑방은 남성들만의 공간으로서 서재(書齋) 겸 손님을 접대하던 응접실이기도 하였다. 홍보가의 사랑치레처럼 사랑방을 잘 꾸미는 것은 남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일종의 과시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행위이기도 했을 것이다.

## 2) 문방책가도의 연구목적

서양화법의 전래와 함께 조선에 출현한 책거리는 산수화나 화조화와 달리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책가도는 서양화법과 우리 그림의 조화로 독특한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고유한 미의식을 재창조 했다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그 의미를 되새겨 잊혀져가는 우리 선조들의 수준 높은 미의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문방책가도의 표현양식

책거리 그림은 일반 민화와는 달리 서양화법에 의한 투시법과 원근법, 명암법을 사용하고, 책이나 책장 등에서는 역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주로 화원(畵員)들에 의해 궁중장식화로 그려지며 입체적 사실감을 중요시 했던데 비해, 수요층이 저변화 될수록 사실감보다는 개별 모티브들의 길상적 의미를 선호하게 되어 책가도는 길상화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원근법이나 다시점(多視點)기법은 책거리 그림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책거리를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합리성의 한계를 이탈한 자유성이 표현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책거리의 화법은 그만큼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이렇듯 기발한 조형의 책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정물화를 보는 듯한 꽃꽂이식 책가도, 둘째 장막을 열어젖히고 구경시켜 주는 듯한 장막 책가도, 그리고 셋째 진열장식 책가도가 있다. 8폭이나 10폭 병풍으로 그려진 책거리 가운데는 질서 있게 책을 쌓아 놓은 첫 번째 양식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양식은 무거운 장막을 사용하여 혼자 즐기던 애장품과 애서(愛書)를 활짝 열어젖히고 자랑삼아 보여주는 그림이다. 세 번째의 진열장식 책거리그림은 책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귀한 보물을 자랑하기 위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작품에 작가명과 년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책가도와 동일한

형태의 문방 모티브를 다룬 서안식(書案式) 문방도(文房圖) 대부분이 조선 후기 민화와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책가도(冊架圖)를 포함한 문방도(文房圖) 전체에 대한 최초의 회화적 관심은 이들을 민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책거리는 독특한 화법으로 변모하면서 다시점의 미묘한 미를 보여주고 있다.

## II. 문방책가도의 임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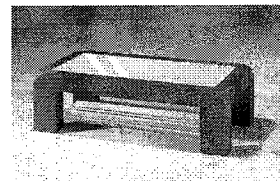
### 1. 임모준비 과정

#### 1) 전사(傳寫)과정

임모를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본뜨는 작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 [준비물]

- 원화(原畵) 사진 : 칼라복사 코팅한 원화 (코팅하면 보면서 그리기에 편리하다). 원화사진을 초 쓰기 편한 정도로 흑백으로 확대 복사한 것. (보다 자세하게 선을 뜰 수 있다.)
- 0.3mm 샤프, 연필 : 예리한 부분은 샤프를 사용하고, 물체의 속성을 살려 그릴 때에는 연필의 굵기와 강약을 조정해 가면서 그리는 것이 좋다.
- 미술용 지우개 : 조금 딱딱한 것. (세밀한 부분에 좋음.) 부드러운 것. (전체적인 부분에 좋음.)
- 트레싱지(tracing paper) : 트레펄지는 선이 미끄러지고 부분적으로 안 그려지기도 해서 트레싱지를 사용하는 것이 선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다.
- 테이프 : 3M제품이 붙었다 떼는 것이 용이해 나중에 그림에 손상이 잘 안 가므로 이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테이프는 붙일 때 양쪽 끝을 살짝 접어붙이는 것이 나중에 떼어 내기에 편리하다.)
- 라이트 박스 : 테이블 탁자는 180cm × 90cm 정도가 적당하다. (가운데는 빛이 잘 투과 되도록 뚫어서 유리를 끼운다.) 형광등은 40W짜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탁자 아래쪽에 설치한다.



<그림-1,라이트 박스>

- 30cm 자 : 책가도의 특성상 곧은 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림을 그릴 때는 원화 크기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50cm자를 사용한다.)

(1) 원화사진을 초를 내기 적당한 크기로 확대복사 하는데 원화 그림보다 여유분을 두어 복사를 한다. 여유분의 여백에 트레이싱지를 3M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라이트 박스 위에 놓은 뒤 문진을 이용하여 더 단단히 고정 시킨다.

(2) 원화의 정확한 크기를 사방으로 체크 한 뒤, 상단 오른쪽에서부터 하단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초를 뜬다. (그래야 초가 뭉개지지 않고 깨끗하게 떠진다.) 초를 뜰 때는 서로 다른 물체를 뜬더라도 선의 중심점에 통일성을 주어 나중에 상초(上草)를 뜰 때 편하도록 한다.

(3) 선을 뜰 때는 연필을 최대한 세우는 것이 좋고, 한 호흡으로 길게 그리는 것이 매끄럽게 표현이 잘된다. 무생물을 그릴 때에는 질감을 생각하고, 생물을 그릴 때에는 생기와 탄력을 생각하며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4) 전체적으로 선의 시작과 끝맺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하고, 개별과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그린다.

(5) 초를 그릴 때에도 상초(上草)를 그리는 마음으로 임해서 그린다.



<그림-2,밀그림 그리기>



<그림-3,밀그림 그리기>

## 2) 순지에 염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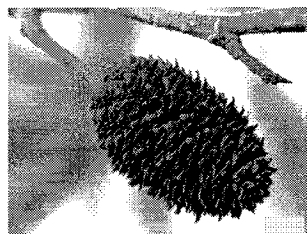
표백이 되어 있는 종이의 생경한 느낌을 없애고, 고화(古畵)의 분위기를 내기위해 바탕색을 염색하는 과정이다.

### [준비물]

- 종이(순지) : 전통한지 전지크기.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장당 5,000원 구입 tel:02-722-3933)

- 오리나무 열매<sup>1)</sup> : 모양은 둥근 것과 끝이 뾰족한 것이 있는데, 각각의 색이 다르다. 둥근 것은 노란 기운이 더하고, 끝이 뾰족한 것은 갈색기운이 더하므로 원화의 색에 가까운 느낌의 것을 선택해서



<그림-3, 오리나무 열매>

염색한다.

- 염색주머니 : 오리나무 열매를 넣을 주머니로 광목천을 사용하여 크기는 25×35cm 정도로 하고, 끝은 묶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 핫 플레이트(Hot plate): 마트나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입 (온도조절이 단계별로 가능 한 것) (1개에 30,000원 정도한다.)
- 평필 : 종이는 견과 다르게 염색물에 넣어 염색하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염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모가 많은 양모의 평필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발라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양모평필 5호 1개에 12,000원 tel: 02-722-3933)

- 양동이 : 20리터정도의 스텐레스 재질(시장에서 구입 1개에 16,000원)
- 큰 사기그릇 : 오리나무 염색물을 담아두기 위해 필요하다.
- 평평한 장판이나 바닥 : 종이를 바닥에 펼쳐 위에서 붓으로 염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음새나 흠이 없는 편편하고 매끄러운 바닥에서 해야 한다.
- 모포 : 젖은 종이를 한 장씩 위에 놓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1) 흔히 오리목이라 부르며 9월, 10월경에 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열매가 2-6개 달리고 긴 달걀모양의 솔방울 처럼 보인다. 염색할 때는 여러 번 우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

- (1) 오리나무 열매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 염색주머니에 넣는다.
- (2) 스텐레스 통에 넣고 열매 양의 2-3배 정도의 물을 넣는다.
- (3) 처음에는 강한 불로 가열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가면서 색을 충분히 우려낸다. (여러 차례 오리나무 열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회를 거둬할수록 염색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 (4) 우려나온 염색물을 준비한 큰 사기그릇에 옮겨 담아서 40℃ 정도의 온도일 때, 평필을 충분히 적신 후 끝에서부터 바르는데, 처음에는 일자로, 다음에는 중심에서 바깥쪽 사선방향으로 바른다. (물이 닿으면 그 부분만 급속하게 늘어나므로 바르면서 종이를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퍼가면서 발라주어야 한다. 붓질을 할 때는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칠해주어야만 종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바르는 중간 중간 종이와 바닥 사이에 생기는 기포를 빼주는 것도 얼룩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어야 한다.)
- (5) 염색물을 다 바른 종이 위에 다른 종이를 편편하게 같이 포개어놓는다.
- (6) 포개어진 종이가 아래 종이의 염색물을 흡수할 때 (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발라준다.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하면 종이와 종이가 서로 염색물을 흡수하고, 흡수시키면서 얼룩이 덜 저서 자연스러운 염색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여러 장을 덧대어 하게 되면 각각의 염색이 다르게 되거나 고루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장 정도가 적당하다.)
- (7) 어느 정도 겹쳐 있는 종이가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조가 되면,

맨 위의 것을 모포 위에 따로 두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린다.

(8) (7)과 같은 식으로 시간차를 두어 맨 위에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조된 종이를 차례대로 같은 식으로 말린다.

(9) 위와 같은 과정으로 원화의 바탕색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염색을 한다. (단, 위의 순서와 반대로 맨 위에 놓여 졌던 종이가 가장 아래로 가게 해서 염색한다.)

(10) 종이는 건과 달라 염색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정착이 되므로 건염색할 때처럼 탄산칼륨( $K_2CO_3$ )<sup>2)</sup>을 사용하여 매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 탄산칼륨은 탄산칼리 또는 칼리라고도 한다. 백색 분말로서 식물을 태운 재 속에 함유되어 있다. 주로 견이나 천 같은 종류에 염색을 할 때는 추후에 염색물이 빠지지 않도록 정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탄산칼륨이 해준다. 하지만 종이를 염색할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

### 3) 교반수(膠攪水) 칠하기

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번짐이 있어서 정교한 선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교반수를 칠해 먹선과 채색이 잘 올라가도록 하는 기본 바탕 작업이다.

#### [준비물]

- 아교(阿膠)<sup>3)</sup> : 알 아교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500g에 6,000원 tel: 02-722-3933)
- 백반(白礬)<sup>4)</sup> : 정제된 백반  
(인사동 성심필방에서 20g에 5,000원 tel:02-734-3132)
- 양팔저울, 비이커 100ml, 200ml, 500ml, 양팔저울(조제용), 유리막대(20~30cm) (종로5가 미산과학의료기에서 구입 tel:02-2267-4473)
- 평필 : 양모 5호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1개에 12,000원 tel: 02-722-3933)
- 핀셋 : 아교를 바른 후 종이에 붙어있는 먼지를 제거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사전에 날카롭게 고운 사포로 갈아둔다.
- 사기그릇 큰 것 : 아교를 담아둘 그릇  
(남대문 이레상사에서 구입 tel: 02-777-8804)
- 모포2개, 거즈, 테이프 (박스테이프)

---

3) 아교는 산양 등 동물의 피질, 어피, 물고기의 부레, 소뼈, 사슴뿔 등을 물에 여러 번 고아서 우려낸 것이다. 보통 2~3회 달여서 뽑아낸 것이 제일 좋고, 어피나 사슴뿔로 우려낸 것을 제일로 치며 색깔이 맑고 연한 것일수록 좋다. 영국은 산양 아교, 독일은 토끼의 뱃가죽으로 아교를 만들고 일본은 사슴뿔로, 우리나라는 주로 어피나 생선, 부레풀 혹은 소뼈로 아교를 만들고 있다. 보통 황갈색 고체이며 물을 넣고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냉각하면 젤처럼 된다.

4) 백반(alum)은 황산알루미늄과 리튬 이외의 알칼리금속, 탈륨, 암모늄 등 1가(賈) 금속의 황산염이 만드는 복염(複鹽)이다.

(1) 견은 올의 성글기에 따라 아교와 백반의 양을 달리하지만 종이는 두께에 따라 다르게 한다. 종이는 견처럼 겉에 표면적인 막이 형성되기 보다는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견 보다는 아교와 백반의 양을 많이 하는 편이다. (참고로 견은 평균 2% 농도의 교반수를 사용한다.)

### ◎ 교반수 만드는 계산방법

ex) 교반수의 농도를 지칭하는 %는 다음과 같이 아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백반은 아교의 1/10)

$$\diamond \text{ 아교(g) / 물(ml) } \times 100 = ( )\%$$

$$\rightarrow \text{ 위 공식의 예를 들면 } \Rightarrow ( 3\text{g} / 100\text{ml} ) \times 100 = 3\%$$

(2) 교반수 만드는 계산방법을 토대로 2ℓ 양의 3%교반수를 만든다. 물 2ℓ에 아교 60g, 백반은 위에서와 같이 아교의 1/10이기 때문에 6g이다. 우선 교반수를 만들 때는 아교의 양을 측정하여 사용하기 하루 전 300cc의 찬물에 넣어 아교를 불린다. (불린 상태에서 중탕하면 잘 녹기 때문)

(3) 불린 아교물에 물 200cc를 첨가해 총 500cc에 아교물을 중탕을 한다.

(4) 백반은 녹이기 전에 준비한 유발에 충분히 곱게 간 후 찬물 300cc에 녹여서 준비 해둔다.

(5) 중탕해놓은 아교 물에 1200cc의 찬물을 넣어 충분히 섞어주고, 아교물이 뜨겁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녹여놓은 300cc의 백반물을 섞어

5) 아교 불린 물과 백반 녹인 물 등의 수치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아교는 뜨거운 물에 녹는 성질이 있고, 백반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만들어 나중에 합쳐주어야 하는데, 아교를 녹이는 물을 많이 잡아서 끓이게 되면 나중에 백반을 희석할 때 물이 식어야 하는 필요 없는 시간이 많이 들므로 적은 물에 아교를 녹여 찬물을 섞어줌으로 해서 백반 물을 바로 섞어 교반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만들 수 있다.

준다.

(6) 다 만들어진 교반수는 깨끗한 거즈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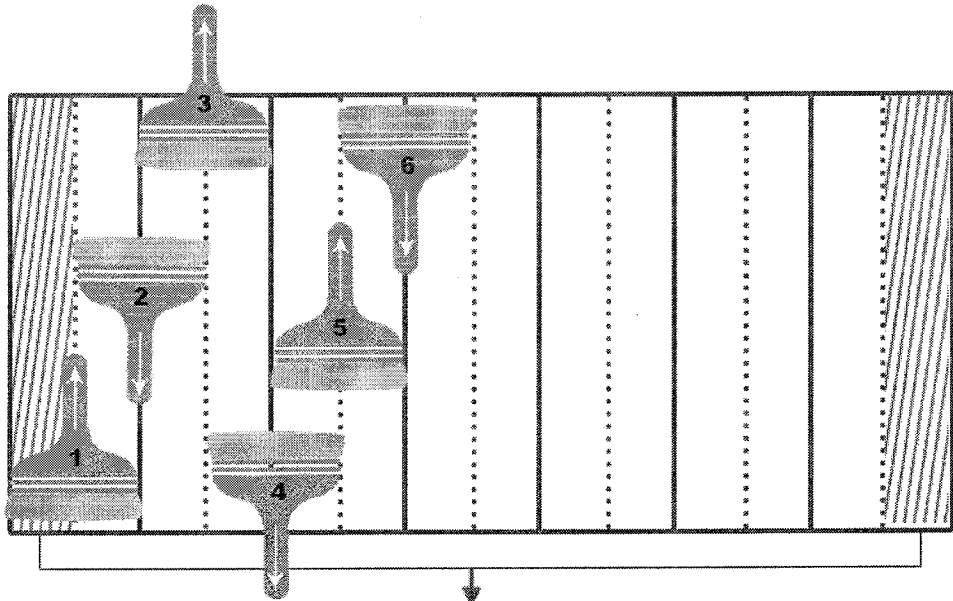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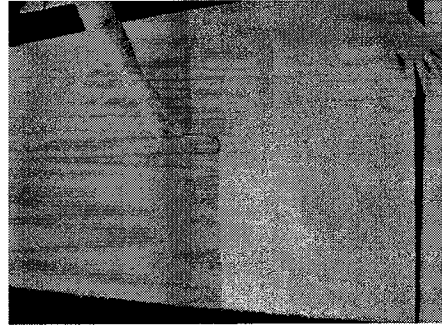
(7) 미리 준비해둔 모포의 먼지를 테이프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 후, 그 위에 종이를 펴서 교반수를 칠한다. (우선 평필에 충분히 교반수를 적신 후, 사기그릇 가장자리에서 교반수의 양을 조절하여 종이의 앞면에 칠하는데, 종이에 교반수가 먹어들어 가면서 모두 균일하게 적셔지도록 칠해 준다.)

(8) 교반수를 처음에 칠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했을 경우,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칠하되 반씩 겹치도록 칠하고, 처음과 끝의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칠해준다.

(9) 교반수를 칠해준 직후 핀셋으로 불필요한 먼지 등을 세밀하게 제거해 준다.

(10) 이런 방법으로 교반수한 종이는 충분히 건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칠해주는데, 그것은 붓에 머금은 교반수의 양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교반수를 칠하는 것은 오히려 교반수가 고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종이의 가장자리의 필요 없는 공간에 먹선을 그어 보거나 먹 선염을 해보아 선염이 번지지 않고 잘되면 교반수가 잘 된 것이다.)

적당하게 잘된 교반수는 채색을 올리는데 수월하고, 바탕이 번들거리지 않아 가벼운 느낌이 없다.



양쪽 끝의 겹치지 않은 부분은 한 번 더 칠해준다.

<그림-5, 교반수 칠하기>

#### 4) 선긋기 연습과 색표 제작

본격적인 임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한 선 긋기 연습과 정확한 색을 알아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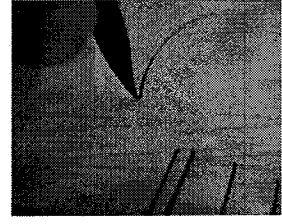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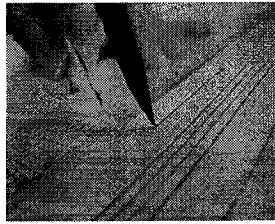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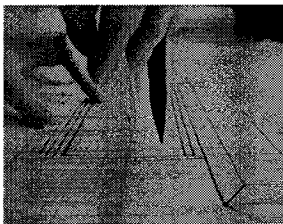
##### (1) 선긋기 연습

선긋기 연습과 색표 만들기는 좋은 임모를 위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긋기는 밑그림이 잘 보여야 하므로 얇은 순지에다 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선 연습을 하기위해서 2%정도의 아교를 만들어 1-2회 정도 칠해 준 후에 연습을 한다. (선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의 강약과 농도, 물체의 기운을 살려 실제처럼 연습하는 것이 좋다.

특히 책가도는 책갑 등의 곧은 선들을 주로 자를 이용해 반듯하게 긋는 선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선을 그을 때는 흠이 파인 제도용 자를 사용하는데, 흠 안에 끝이 둥글고 매끄러운 것을 지지대로 삼아 젓가락 잡듯이 붓을 잡아 긋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붓을 세워 중봉으로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세로로 선을 그을 때에는 붓 끝을 앞으로 당겨 내리꽃듯이 선을 긋는다는 생각으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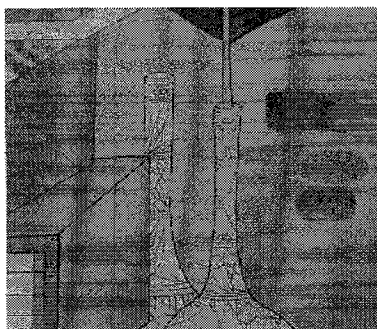
<그림-6, 선긋기 연습>

##### (2) 색표 만들기

염색한 종이를 10호 정도 되는 화판에 붙인 뒤, 약 3.5cm×4.5cm 정도의 넓이로 색을 칠해 본다. 색을 맞추어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화의 변색되기 전의 처음 색을 감안해서 색표를 만들어야 한다. 전체적인 원화

의 물감 두께를 보고, 대략 석채인지, 염료인지 등을 파악해서 색을 선택하고, 각각의 특징적인 개체들을 따로 그려 봄으로써 원화와 동일한 표현 기법과 색을 찾아본다. 색을 한 번에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석채를 구워 보기도 하고, 석채 위에 염료를 칠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칠해 본다.

색표와 선긋기를 통해 미리 예측 할 수 없었던 원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고, 한곳에 색을 칠해 봄으로써,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나 선의 두께감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7, 색표>



<그림-8, 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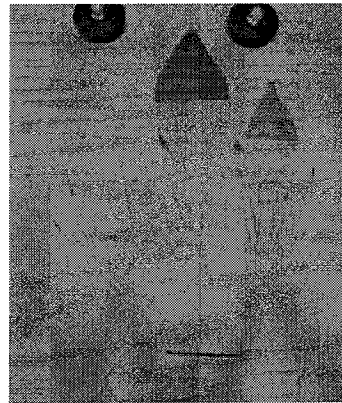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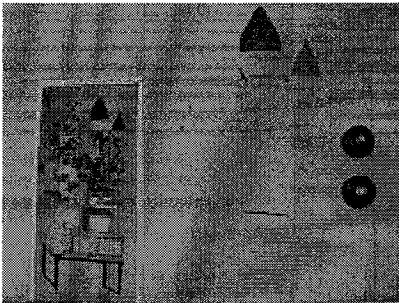
## 2. 임포제작 과정

### 1) 상초(上草)하기

임포작업의 시작단계이며, 밑그림을 참고하여 실제적으로 먹 선을 긋는 작업이다.

#### [준비물]

- 벼루(小), 먹 : 일본산 고매원(古梅園)오성(五星)
- 붓 : 면상필<sup>6)</sup>, 각종 크기의 선붓
- 물통, 접시, 거즈, 쟁반, 연적, 3M테이프



<그림-9, 초내기>

(1) 원화 크기로 확대한 초의 틀린 부분을 수정한 후 다시 같은 크기로 복사한다.

(2) 먹을 충분히 갈아서 붓으로 선을 그어 본 후 붓의 나감이 너무 ‘거칠다’ 라고 느껴지면 물을 아주 조금 섞어서 선의 나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단,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물을 첨가하는데 있어서 그 많고 적

---

6) 면상필은 예리한 붓을 말하는데, 사람의 눈썹, 머리카락 등의 세부 묘사에 사용되며 얼굴을 묘사하는 붓이라 하여 면상필이라 부른다. 황모(죽제비 꼬리털)로 만드는데 붓은 길지만 붓의 끝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뛰어나다.

음이 적절하지 못하면 선이 물러 보이거나 너무 거칠어 보이므로 잘 조절하는 것이 좋다.)

(3) 아래에 합판을 놓고, 그 위에 복사한 초를 3M테이프로 사방을 고정시킨 후 염색과 교반수를 모두 마친 종이를 원화와 여백을 생각하여 자리를 잡는다. 종이의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위에 문진 등으로 눌러준다.

(4) 연필 초를 뜯 때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먹으로 내는 초도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 깨끗이 뜨고, 특히 다른 곳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한다. 또 선을 그을 때는 붓을 종이에서 약간 떼어서 가상적으로 팔의 동선을 그려야 할 선을 따라 이동해 본다. 긴 선일 경우 가야할 방향 쪽으로 걸리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숨을 멈추어서 두 번에 갈지 아니면 한 번에 갈지 등을 미리 생각하여, 선을 그리는 것이 좋다.

색을 올리기 전에 원화의 물감두께를 감안하여 먹선의 농담을 정하고, 전체적인 선의 굵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물체의 생명감과 질감을 생각하고, 원화의 선 느낌을 최대한 살려 그려야 한다.

## 2) 1차 배접하기

상초를 끝내고 채색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배접을 한다. 왜냐하면 밑그림을 토대로 상초를 내기 위해서 밑그림이 비칠 정도의 얇은 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초를 다 그린 후 채색을 올리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얇은 종이에선 채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접을 통해 채색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종이 두께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 [준비물]

- 상초(上草)가 완성된 그림
- 풀 만든 것

#### ◎ 풀 만드는 방법㉑

- ① 전분을 물에 넣어 손으로 충분히 으갠 후 30분-1시간 정도 불려준다.
- ② 어느 정도 풀어 준 뒤 올이 생긴 천이나 망에 찌꺼기를 거르고 곱게 걸러진 전분 물을 중간불로 가열하는데, 가열하는 동안 누르지 않게 잘 저어준다.
- ③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계속 천천히 저어주면서 어느 정도 점도가 생길 때까지 가열한다.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수한 녹말만 남게 된다.)

- 사기그릇 중간 것, 작은 것 : 풀 담을 것과 물 담을 것.
- 평필(풀칠 용) : 양모 5호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1개에 12,000원 tel:02-722-3933)
- 평필(배접 용) : 배접한 후 마무리용으로 사용한다.
- 배접지 : 갈색의 미색이 도는 순지 얇은 것
- MDF판 (두께 1cm) : 원화보다 양옆으로 여유 있게 큰 사이즈로 된 것. 4개 (화판은 위에 올라가 그리는 것이 불편하므로, MDF에

7) 보통 밀가루 풀을 많이 쑤어서 쓰지만, 밀가루 풀 보다는 전분을 사용하여 풀을 만들면 풀의 색이 훨씬 투명하고 맑다.

그림을 붙여 그리는 것이 편리하다.)

- 스프레이
- 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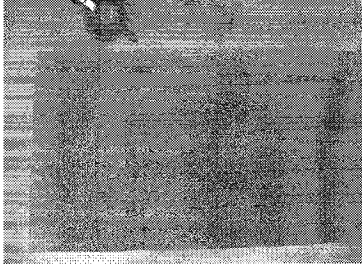
(1) 깨끗한 장판 위에 배접지를 놓고, 분사용 스프레이로 멀리서 분사하여 종이를 촉촉하게 적신 뒤에 깨끗한 붓으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펴서 장판에 판판하게 붙인다.

(2) 종이가 조금 촉촉할 정도로 물기가 건조 되어지면 배접지 위에만 들어 놓은 풀을 붓에 충분히 적셔서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풀의 양을 조절한 뒤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발라준다. (종이와 바닥사이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3) 그림이 위쪽으로 오게 하여 동그랗게 말아서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붓을 쥐고 그림의 양쪽 끝을 풀이 칠해진 배접지에 끝부터 사방으로 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붙이기 시작한다. 말려져 있는 종이를 조금씩 풀면서 붙여 나가는데 이때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붓으로 종이를 쓸듯이 눌러서 밀어가며 잘 붙도록 한다.

(4) 다 붙은 그림을 깨끗한 붓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두드려서 잘 떨어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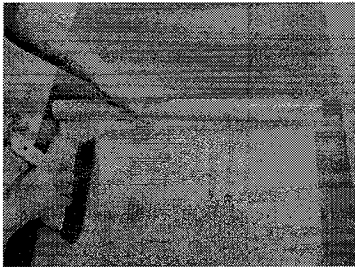
(5) 준비해 놓은 MDF판 (미리 캔트지를 오공 본드로 깨끗이 붙여서 화판처럼 준비 해 둔다.) 에 옮겨 붙인다. (풀기가 조금 마른 다음 그림을 안쪽으로 하여 판에 붙인다. 이때 그림의 가장자리에 종이를 작고 길게 잘라서 한곳에 붙여두면 나중에 다 건조 된 뒤에 떼어내기가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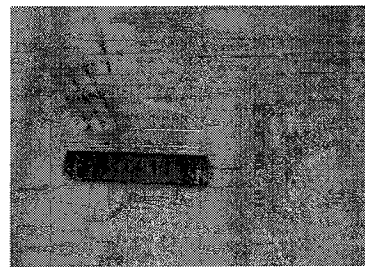
- ① 분무기를 멀리 떨어뜨려서 골고루 뿌려 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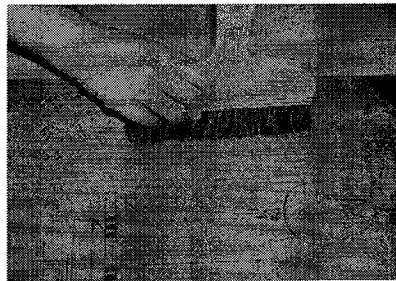
- ②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 주면서 하되, 힘을 빼고 살며시 붓질을 해 주어야 종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③ 미리 여백을 계산하여 사방으로 충분하도록 한다.



- ④ 그림이 배접지에 고무 잘 붙도록 전체적으로 살며시 쓸면서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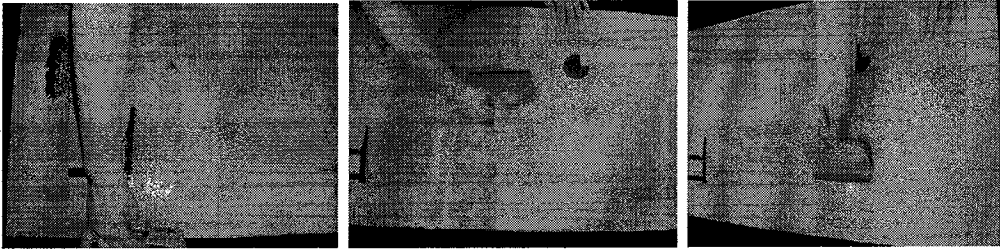


- ⑤ 그림의 가장자리가 잘 떨어지므로 붓을 세워 두드려서 잘 붙도록 해준다.

<그림-10, 1차 배접하기>

### 3) 2차 교반수(膠礬水) 칠하기<sup>8)</sup>

1차 교반수는 상초를 그리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면, 2차 교반수 채색을 올리기 위한 밑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교반수 역시 1차 교반수와 같이 교반수를 3%로 만들어 사용한다. 1차 교반수 때보다 배접을 하여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져 같은 농도의 교반수라도 많이 흡수를 하게 된다. 한 번의 붓질로는 고르게 전체적으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종이가 교반수를 일정하게 먹도록 해야 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반씩 겹쳐서 칠해준다. 이렇게 하면 2번을 칠하는 효과도 나고 경계도 잘 생기지 않는다. 처음과 끝의 겹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칠해준다.

<그림-11, 2차 교반수 하기>

---

8) 1차 교반수와 동일하므로 같은 재료를 준비한다.

#### 4) 채색<sup>9)</sup> 올리기

원화의 색을 유추해 색표를 만든 것을 토대로 실제 색을 올리는 단계이다.

채색은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색의 조화 그리고 같은 색 계열의 채도 등의 차이를 적당히 비교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그려야 한다. 이 논문의 책거리 그림인 원화는 색감이 화려하고 원색적인 느낌이 강해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매우 생경하고 딱딱한 그림이 되기 쉽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색표를 미리 만들어 보고 원화에 가까운 색을 찾아보는 것이 본격적인 임도 작업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색표를 기본 토대로 삼고, 실제 채색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원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그림의 조화를 생각하며 그려야 한다.

#### [준비물]

- 물감아교 : 색표 만들기 과정에서 10%의 농도로 만든 것.

#### ◎ 물감아교 만드는 계산방법

❖ 물감아교 = 물(100ml) : 아교(10g)

10 (물ml) : 1 (아교g)

(=아교는 10%로 만들어 쓴다.)

- 채색 붓<sup>10)</sup> : 大, 中, 小 크기의 붓을 색별로 준비한다.  
(녹색, 청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황색 등 따로 준비)

9) 채색에는 광물성(鑛物性) 안료(顔料)와 식물성(植物性) 염료(染料)가 있다. 광물성 안료는 주사, 석청, 석록 등이고, 식물성 염료는 쪽이나 등황이 여기에 속한다.

10) 채색붓은 양모와 마모 말갈기털을 혼합 한 것으로 길이가 짧고 붓이 예리하지 않으며 약간 통통한 게 특징이다.

(인사동 서예백화점에서 구입. 小=2,500원, 中=3,000원, 大=3,500원. tel: 02-739-9500)

- 유발 작은 것

- 석채(石彩)<sup>11)</sup> : 석록(石綠)<sup>12)</sup> 2, 3, 4번 준비, 석청(石靑)<sup>13)</sup> 3, 4번 준비, 주사(朱砂)<sup>14)</sup> 3번 준비

(인사동 서예백화점에서 구입. 석록1g=330원, 석청1g=450원. 주사1g=250원. tel: 02-739-9500)

- 봉채(棒彩)<sup>15)</sup> : 대자(代赭)<sup>16)</sup>, 연지(臙脂)<sup>17)</sup>, 등황(藤黃)<sup>18)</sup>, 쪽(藍)<sup>19)</sup>

(인사동 구하산방에서 구입. 쪽=30,000원, 대자=23,000원, 연지=30,000원, 등황=크기에 따라 다름. tel:02-7302-9859)

- 분채(粉彩)<sup>20)</sup> : 밝은 황토색 (인사동 성심필방에서 구입 한 봉지=4,500원.

11) 석채(石彩)는 색이 있는 천연의 광석을 빻아서 만든 돌가루를 말하는 것으로 암채라고도 한다. 변색, 퇴색이 적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12) 석록(石綠)은 공작석(Malachite Green)을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암채색이다. 입자가 크면 진한 암록색이 되고 입자를 곱게 하면 벽록색이 된다.

13) 석청(石靑)은 공작석(Malachite Green)과 같이 산출되는 남동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안료로 비상한 청색을 나타낸다. 입자가 작은 것은 백군이라고 불린다. 산출량이 적어 고가의 안료이다.

14) 주(朱)는 수은과 유황으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황 또는 주홍을 띤다. 입자가 가늘수록 빨간색을 잃으며 거의 불변하고 색이 붉기 때문에 예로부터 상서롭게 취급되었다. 주를 납을 포함한 은이나 연백등과 함께 사용하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5) 봉채(棒彩)는 가루상태의 안료나 염료를 야교물로 반죽하여 손가락 크기정도의 막대모양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가볍고 견고하여 취급이 편하고 야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처럼 접시에 갈아서 쉽게 쓸 수 있다.

16) 대자(代赭)는 고급 안료로서 투명도가 뛰어나다. 비교적 변색이 적은 색으로 다른 색과 혼합하여도 변색되지 않는다. 동양화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색으로 흙과도 화합하여 많이 쓰인다. 주, 황토보다도 입자가 고운 편인데 좋은 것일수록 입자가 미세하고 색상도 좋다. 현재 좋은 대자는 주로 서독과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화학성분은 산화철과 망간이다.

17) 연지(臙脂)는 식물에서 특히 꽃에서 채취하여 사용한다. 이 색의 특징은 색은 아주 아름다우나 산성이므로 약간 변색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화합합성 시킨 안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18) 등황(藤黃)은 인도, 중국, 태국, 실론 등에 자생하는 가르시닉(Garcinic) 망고스경과의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색소이다. 독성이 있고 퇴색이 되는 색이라 현재는 합성 유기안료를 쓴다.

19) 쪽(藍) 풀에서부터 나온 청색의 식물 염료이다. 남색의 즙을 숙성 시켰을 때에 표면에 뜨는 거품을 채집하여 만들어 졌지만 현재에는 화학염료인 인디고를 이용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안료이다.

tel:02-734-3132)

- 편채(片彩) : 붉은 대자 (붕채를 편으로 만든 것)
- 카본블랙(Carbon Black)<sup>21)</sup> : 검은색 안료 (개당 15,000원)
- 합분(蛤粉)<sup>22)</sup>

▶ 채색과정에 사용되는 석채, 붕채, 편채, 합분 등의 재료 사용방법을 알아본다.

#### (1) 석채(石彩)

- 석채를 개는 방법

석채는 입자가 굵아서 종이나 견등의 바탕재료에 잘 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감아교를 너무 적게 하면 박락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석채 고유의 색이 불투명해지거나 막이 형성되어 번들거림이 생긴다. 우선 석채를 적실 정도로 아교물을 약간만 넣고 중지로 되직하게 개다가 너무 뽀뽀하면 조금씩 아교물을 더 넣어 고루고루 개어 준다. (주의=이때 아교물이 너무 많으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아교물 위에 떠서 아교를 석채에 고루 혼합 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붓에 묻혀 칠할 때에도 석채의 입자가 따로 놀아 고루 칠하기 어렵다.) 되직하게 잘 개어진 석채에 물을 약간만 넣어 엉겨있는 석채와 아교를 붓에 묻혀 바르기 쉽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주의=이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아교의 농도가 약해져서 채색 후에 박락 현상이 일어난다. 손끝에 석채를 조금 묻혀서 끈기를 확인해 본다. 만약 아교의 농도가 약해서 끈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교물을 좀 더 첨가한다.)

21) 카본블랙(Carbon Black)은 천연가스, 기름, 목재, 그 외의 유기물을 부분적으로 연소시키거나 또는 탄화시켜서 만든다. 빛, 공기, 열, 알칼리류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평상히 고온에서 연소될 때에만 파괴된다. 안료로서는 아주 뛰어난 피복력이 있다. 카본블랙은 갈색을 띤 흑색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무정형탄소의 양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농담이나 색의 강도가 달라진다.

22) 합분은 백색의 대표적 안료로서 오랜 시일이 지날수록 발색이 더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분의 주성분은 탄산석회이다. 원료인 조개껍질을 분말로 만든 후 물로 장시간 세척하여 물통에 넣고 침전시켜서 입자를 분류한다. 이렇게 침전시킨 것을 건조판 위에서 천연 건조시켜 제품을 만든다. 합분의 색이 순백이고 가루가 고울수록 상급 품이다. 하급품은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백색도가 떨어지므로 그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

- 석채를 칠하는 방법

석채는 색의 번호가 클수록 입자가 작고 밝은 색이다. 입자가 고은 석채일 경우에는 피복력이 좋아 색을 칠할 때에도 수월하지만 입자가 큰 경우의 석채는 균일하게 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입자가 거친 석채를 채색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와 같이 석채를 잘 개었다하더라도 아교의 농도를 어떻게 사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아교가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붓에 찍어 사용할 때 마다 가라앉은 석채와 위에 떠 있는 아교물을 잘 섞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자가 굵은 석채를 칠 할 때에는 석채를 개었을 때, 위쪽에 뜬 고은 석채로 얹게 칠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한 곳으로 석채입자가 몰리거나 얼룩이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기본을 얹고 곱게 칠해 놓으면 위에 다시 석채를 올릴 때 입자가 고루 잘 분포되기 때문이다.)

- 석채를 곱는 방법 (석록, 석청)

석채는 광물성 안료이기 때문에 식물성 염료와 달리 불에 구우면 색이 어두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석채를 곱기 위해서는 버너와 국자를 사용한다. 불에 달구어진 국자에 석채를 적당히 넣고, 고루 구워 지도록 유리막대로 계속 저어준다.

색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원하는 색이 될 때 빈 그릇에 바로 옮겨 담는다.

(주의=구워진 색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물감을 개어서 칠해 보면 너무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 구어서 칠해 보고 너무 밝다 싶으면 다시 조금 더 곱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남은 석채의 보관 방법

적당량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지만, 석채가 남은 경우에는 보관방법이 따로 있다. 우선 뜨거운 물을 부어서 10분정도 후에 석채가 바닥에 다 가라앉고 물만 위로 뜨면 물을 따라 버린다. 이를 3-5회 정도 반복한

후 랩을 썬워서 보관하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아교가 물위로 뜨는 성질과 따뜻한 것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 (2) 주(朱)

- 주를 수비(水飛)<sup>23)</sup>하는 방법

주는 시중에서 1주, 2주, 3주로 나뉘어 져 있는 것을 구매 할 수 있는데 이는 수비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주색을 만들 수 있다. 1주는 자주색에 가깝고, 3주로 가면 갈수록 다홍색에 가깝다. 하지만 1, 2, 3주 모두 수비를 통해 표주(標朱)를 얻을 수 있고 보다 밝은 표주를 얻기 위해서는 3주를 사용한다.

우선 석채를 개듯이 같은 방법으로 주사 3번을 갠 다음 잠시 놔두었다가 주홍색의 주가 위에 뜨면 다른 접시에 위에 뜬 주홍색의 표주(標朱)만 조심스럽게 따라낸다. 수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노란색에 가까운 표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주홍색의 표주(標朱)가 필요하므로 수비를 통해서 주홍색 표주를 만들어 사용한다.

## (3) 봉채(棒彩)

- 봉채를 개는 방법

봉채는 그 자체를 먹처럼 아교로 뭉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아교를 첨가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엷은 봉채 색을 원할 경우 물이 많이 첨가되면서 아교물의 농도가 흐려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아교물을 더 넣어준다.

우선 마른 그릇에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넣은 후 봉채를 원을 그리며 먹갈듯이 갈아 준다. (따뜻한 물이면 더욱 잘 갈린다.) 어느 정도 진하게 갈아지면 물을 첨가해 가면서 갈아준다. 이렇게 갈아준 봉채는 찌꺼기 제거

---

23) 수비(水飛)는 안료의 입자 크기에 따른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여 안료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교물을 넣어 주를 갠 뒤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가장 굵은 입자가 접시 바닥에 가라앉고 가장 고운 입자가 제일 위에 뜬다. 바닥의 굵은 입자를 삼주(三朱), 중간에 있는 것을 이주(二朱), 맨 위에 뜨는 것을 두주(頭朱) 또는 표주(標朱)라고 한다. 삼주로 가면 갈수록 자색에 가까운 주색이 나오고 표주에 가까울수록 주홍이나 노란색에 가까운 주색을 얻을 수 있다.

를 위해서 거즈 등으로 걸러준다.

(이때 미리 거즈를 물로 적셔 두면 좋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갈아 놓은 것은 잘 걸러지지 않으므로 조금 묽게 하여 거르는 것이 좋다.)

봉채 사용 후에는 먹과 같은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해 보관하는 것이 잘 갈라지지 않는다.

#### (4) 편채(片彩)

##### - 편채를 개는 방법

편채는 봉채와 같은 염료 성분의 물감으로 모양이 납작한 편(片) 모양으로 되어 있어 편채라고 부른다. 사용 방법은 따뜻한 물에 3분 정도 불린 후에 중지로 원을 그리듯이 누르면서 갈아주면 된다. (처음에 물에 불리는 이유는 봉채는 바로 잘 갈리지만 편채는 봉채보다 단단해 바로 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려 녹이면 편리하다.)

#### (5) 합분(蛤粉)

##### - 합분을 개는 방법

합분도 석채와 같이 박락되기가 쉬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교와 합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개어 주어야 한다.

우선 유발에 호분을 넣고 충분히 곱게 갈아준 다음, 아교물을 넣어 석채와 같은 방법으로 개어 다시 한 번 갈아준다. 뽀뽀하게 개어진 합분에 물을 넣어 다시 잘 개어준 다음 손가락에 묻혀 끈기를 확인해 본다.

##### - 합분을 칠하는 방법

잘 개어둔 합분을 잠시 동안 놓아두어 위에 뜬 맑은 합분을 다른 접시에 분리한다. 이는 석채와 마찬가지로 고운 합분을 먼저 바탕에 칠해 주면 위에 칠해질 합분이 고루 잘 분포되기 때문이다. 얇게 여러 번 칠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5) 가필(加筆)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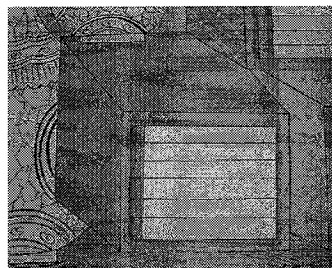
석채나 분채, 합분 등은 두께감이 있는 안료라서 어느 정도 채색이 다 올라가게 되면 상초가 가려져 선이 불분명하게 된다. 그럴 경우 상초처럼 다시 선을 분명하게 그려주는 것을 가필이라고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선으로 그려야 한다.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강약을 조절해 원화의 느낌을 살려서 그린다.

### 3. 세부묘사 과정

#### 1) 붉은색 책갑

우선 표주를 얇게 3-5회 칠해 주는데, 표주만으로는 원화의 밝은 주홍색이 표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분채 주홍을 얇게 1-2회 정도 칠해주어 밝은 주홍색을 만들어 준다. 그 위의 꽃문양은 주 3번으로 붓에 많이 묻혀서 한 번에 그려 준다.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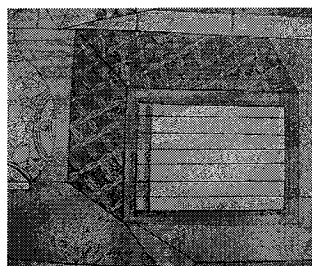


<그림-12, 부분도>

#### 2) 파란색 책갑

석청 4번을 3회 정도 칠해주어 바탕색을 만들고, 석청 3번을 30초 정도 약한 불에 구어서 색을 조금 어둡게 한 다음 격자무늬로 된 선을 자로 반듯하게 그린 뒤에 꼭지 점을 기점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린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안쪽 면은 봉채로 우려 주는데, 등황과 쪽을 섞어 어두운 녹색을 만들어 칠해주고, 마지막으로 합분을 찍어준다.

(그림-13)



<그림-13, 부분도>

#### 3) 노란색 책갑

황토계열 분채를 3회 정도 나누어 바탕으로 칠해주고, 색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자를 2-3회 정도 칠해준다. 합분으로 무늬를 칠해주는데, 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합분이 갑자기 올라와 생경한 느낌이 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림-14)



<그림-14, 부분도>

#### 4) 자주색 책갑

다른 책갑과 두께감을 비슷하게 주기 위해 자주색 분채를 얇게 한 번 칠해주고, 다시 봉채 연지에 먹을 약간 섞어서 색을 원화와 맞추어 준 뒤에 어두운 부분은 봉채 연지, 편채 붉은 대자와 먹을 섞어서 우려 주듯이 칠한다.

(그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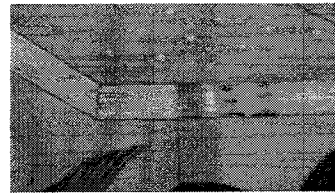


<그림-15, 부분도>

#### 5) 책의 단면

바탕은 합분으로 얇게 여러 번 칠해주고 종이결은 먹으로 그려 주는데, 종이의 결을 그릴 때에는 붓에 물기를 빼서 갈필을 이용해 거칠고 뾰뚱한 종이의 느낌을 살려 그려준다.

(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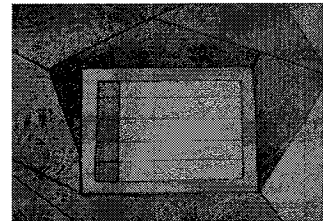


<그림-16, 부분도>

#### 6) 책갑의 안쪽 면

우선 대자와 약간의 먹을 섞어 3회 정도 칠해주고 석록 1번을 얇게 2회 정도 우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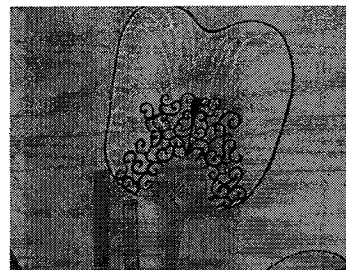
(그림-17)



<그림-17, 부분도>

#### 7) 부채

황토 계열 분채로 바탕을 3회 정도 칠하고, 대자를 얇게 2회 정도 칠해 색을 가라앉힌다. 무늬는 합분으로 된 것을 먼저 그려주어야 하는데 합분을 얇게 칠하기 보다는 조금 진하게 하여 선을 굵듯이 그려준다. 검은 무늬는 먹으로 2회 정도 진하게 그려준다. 마지



<그림-18, 부분도>

막으로 부채 손잡이를 주 3번을 칠하고, 손잡이 위의 점은 호분에 대자를 약

간 섞어 색의 톤을 가라앉혀 찍어준다. (그림-18)

#### 8) 모란

붉은색 책갑의 바탕을 칠한 것과 바탕은 동일하게 하고, 꽃잎의 어두운 부분은 주 3번의 가라앉은 진한 주를 사용하여 여러 번 우려 준다. 나무색은 대자와 연지, 먹을 섞어 진하게 만들어 2-3회 정도 칠해준다.

(주의= 꽃잎의 바탕을 칠할 때 먹선 까지도 같이 칠한다.) (그림-19)



<그림-19, 부분도>

#### 9) 국화꽃

합분을 얹게 만들어서 5-6회 정도 올린다.

그렇게 하면 꽃잎의 곱고 부드러운 질감을 살릴 수 있다. 꽃의 진한 부분은 주 3번으로 얹게 여러 번 우려 준다. 가운데 수술 부분은 황토 계열 분채로 2회 칠해준다. (그림-20)



<그림-20, 부분도>

#### 10)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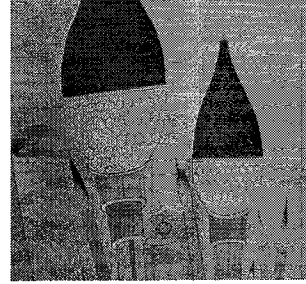
황토색의 분채를 칠하고, 대자로 색을 가라앉힌다. 점은 호분에 대자를 섞어서 찍어준다. 잎의 밝은 색은 석록 4번을 칠하고, 어두운 색은 석록 3번 칠하는데, 미묘한 잎 색의 표현은 봉채를 사용해서 덧칠하는 식으로 변화를 준다. 이때 봉채는 대자와 쪽을 사용해 잎 마다 다르게 표현해 준다. (그림-21)



<그림-21, 부분도>

### 11)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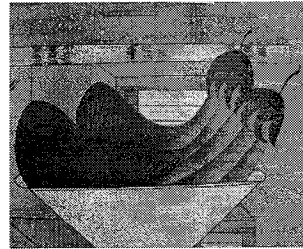
붓의 털 부분은 먹으로 진하게 여러 번 칠해 주고, 아래 붓대 부분은 석록 5번을 얇게 칠하고, 녹색 기운을 좀 더 밝게 해주기 위해 합분을 얇게 한 번 올린 후, 대자를 얇게 칠하여 합분의 뜨는 기운을 가라앉힌다. 별집모양의 무늬는 주 3번으로 그려 준다. (그림-22)



<그림-22, 부분도>

### 12) 가지

가지의 꼭지 부분은 먹으로 진하게 칠해주고, 몸 부분은 먹과 붉은 대자를 섞어서 우려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 칠한다. 우릴 때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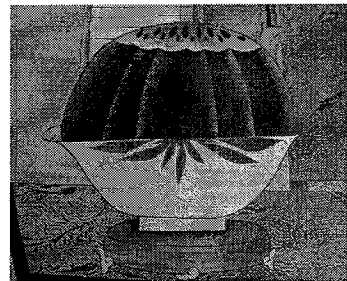


<그림-23, 부분도>

### 13) 수박

수박은 먹과 붉은 대자를 섞어서 가운데에서 부터 바깥쪽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려 준다. 위의 수박 단면은 합분으로 전체 면을 칠한 뒤 주 3번으로 자연스럽게 우려 준다. 마지막을 먹으로 수박씨를 그려준다.

(그림-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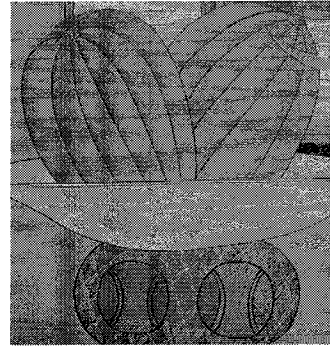
<그림-24, 부분도>

### 14) 수박 그릇

합분을 바탕에 칠하고, 무늬는 쪽과 먹을 약간 섞어서 칠해준다. 아래 단 부분의 측면은 빨간색 책갑의 색과 동일하게 칠한 후, 주 3번으로 무늬를 그린다. 위의 단면은 석청 4번으로 칠해 준 뒤, 쪽과 먹을 섞은 것으로 그릇과 접치는 부분을 우려 준다. (그림-24)

### 15) 참외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석륙 5번으로 칠해준 뒤, 등황과 대자를 섞어서 얇게 여러 번 칠해 원화와 색을 맞춘다. 등황과 쪽, 먹을 약간 섞어서 선염을 여러 번 하여 자연스럽게 음영을 만든다. 참외 속이 드러난 부분은 대자와 약간의 먹을 섞어서 바탕을 칠하고 주 3번으로 참외 씨를 찍어준다. 투명한 그릇의 표현은 합분은 다른 그릇 보다 얇게 칠해서 참외의 아랫부분이 비치 정도로 한다. (그림-25)



<그림-25, 부분도>

### 16) 산호

표주를 여러 번 얇게 칠해준 뒤, 주 3번으로 선을 그려준다. 이때 주선을 일률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산호의 굴곡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그리는 것이 좋다. (그림-26)



<그림-26, 부분도>

### 17) 선추(扇鍾)

위쪽은 바탕을 표주로 얇게 칠하고, 호분을 세필로 선을 그어 그려준다. 위의 작은 구슬은 주 3번으로 칠해주고 아래 큰 구슬은 석륙 4번으로 칠해준다. 아래 술은 먹선, 주선, 녹색으로 붓 끝을 살려서 그어준다. (그림-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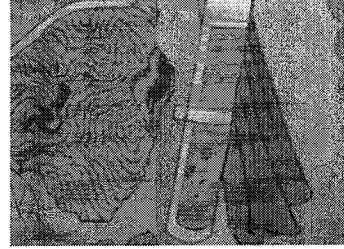


<그림-27, 부분도>

18) 은장도

흰색 부분은 합분을 3회 정도 얇게 칠해 올려주고, 안쪽은 대자에 먹을 약간 섞어서 칠해준 뒤, 먹을 좀 더 섞어서 무늬를 그려준다. 무늬를 그릴 때 원을 그리듯이 진하게 선을 그린 후, 물붓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그림-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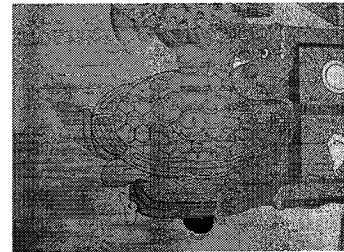


<그림-28, 부분도>

19) 거북이

석록 4번을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눈과 이, 목의 뒷 부분을 합분으로 칠해준다. 목 부분은 표주를 얇게 칠해주고, 주 3번으로 우려 준다. 다시 먹선으로 선을 떠준 다음 합분으로 점을 찍어 준 뒤에 먹으로 점의 음영을 내어 준다.

(그림-29)



<그림-29, 부분도>

20) 물고기

대자와 약간의 먹을 섞어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입과 아가미 눈 주위는 주 3번으로 우려 준다. 비늘 사이사이와 지느러미 꼬리 부분은 먹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눈을 합분으로 칠한다.

(그림-30)



<그림-30, 부분도>

21) 붓꽃이

대자와 연지 조금, 먹 조금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칠해준다. 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하면서 색의 적당한 정도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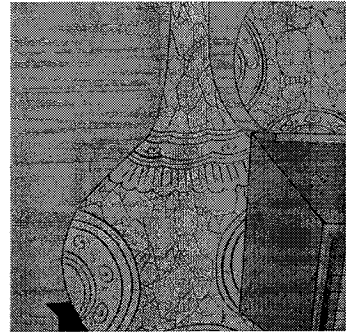
(그림-31)



<그림-31, 부분도>

## 22) 삽화병(插花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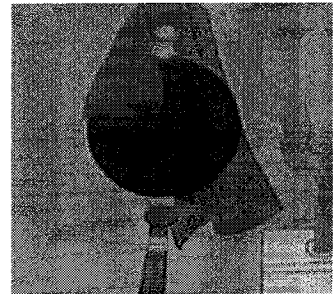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합분을 얇게 여러 번 나누어 칠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고 곱게 표현되도록 한다. 어느 정도 적당한 합분색이 만들어 졌으면 먹으로 화병의 무늬와 균열을 그려주는데 이때 너무 일률적으로 그리지 않고 느낌을 살려 그려주는 것이 좋다. (그림-32)



<그림-32, 부분도>

## 23) 장식

카본블랙을 석채 개듯이 개어서 2회 정도 칠해준다. 카본 블랙은 입자가 고와서 칠하기에 수월하다. (그림-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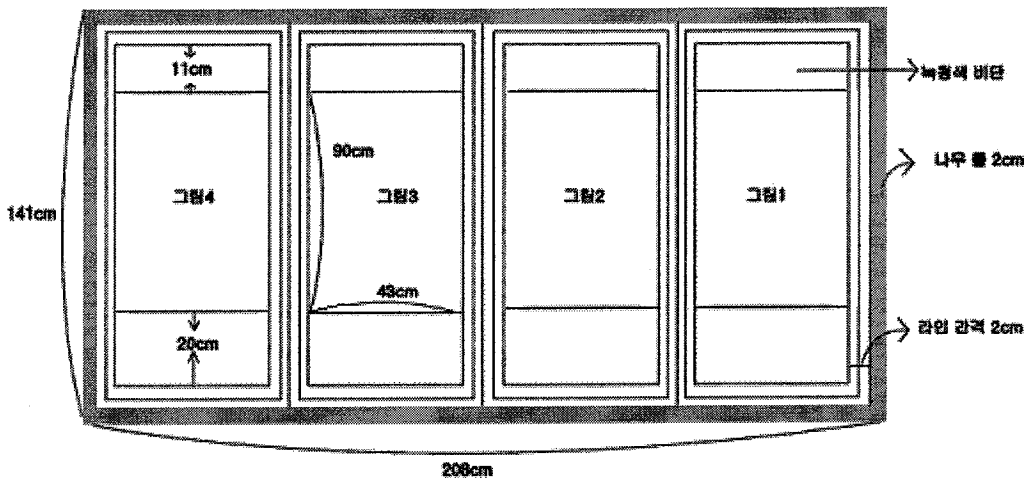
<그림-33, 부분도>

#### 4. 표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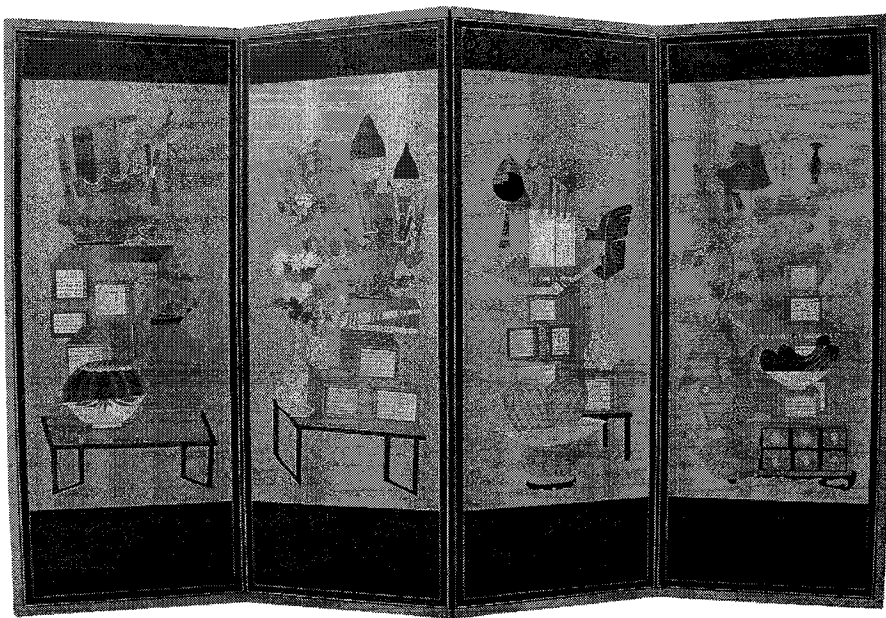
표구는 그림의 포장기능과 같은 것으로 작품을 보존해 주기도 하고, 보다 보기 좋게 꾸며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표구에 따라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표구로 마무리 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을 잘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림보다 더 부각되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림만 부각되어서도 안 된다. 그림을 보다 더 꾸며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적당히 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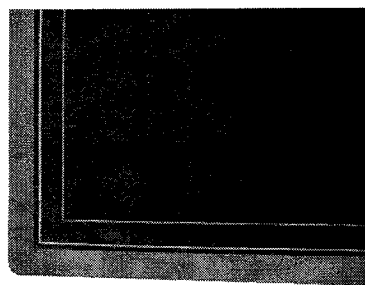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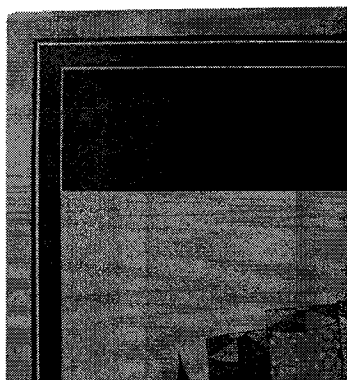
이번 논문의 책거리 원화는 병풍으로 제작되어 족다. 병풍의 제작에 앞서 그림에 맞는 비단의 선택과 병풍전체의 비율을 정하여 여러 비단을 실제로 그림에 대어보고, 그림의 여백과 테두리를 어떻게 두를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병풍의 옛 비례는 좌식문화의 영향으로 아랫단의 비율과 윗단의 비율이 많이 차이하지 않았으나, 입식문화에 접어들면서 병풍의 비례가 상대적으로 아랫단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표구는 옛 방식을 따라 표구의 비율을 정하고, 그림과 잘 어울리는 녹색색의 비단을 사용하였다.



<그림-34, 책거리 병풍도면>



<그림-35, 표구가 끝난 책거리 병풍>



<그림-36, 표구가 끝난 병풍 부분>

## IV. 결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디자인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익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공예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진채를 정말 가치가 있는 고품격 수공예라고 말하고 싶다. 진채를 수공예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궁중 회화는 왕을 위한 고품격 수공예 장식품이었다.

고품격 예술인 진채는 장인적인 정신에 예술의 혼을 담아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다른 회화와는 달리 전통진채는 재료를 다루는 것이 까다롭고 예민해 기술적인 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반수 과정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 바탕 작업으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당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각각의 안료나 석채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색의 고착과 발색의 효과를 적절하게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진채를 그리는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면만으로 그리는 것은 가장 우려할만한 점이다. 잘 그린 그림 같지만 생기 없고 딱딱한 그림은 진채 재료에 대한 기술적인 면으로만 그린 그림이다. 재료를 다루는 기술적인 면과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적 혼, 그리고 물체 하나하나에 기운을 살려 그리는 것, 이는 모두 진채를 그리는 작가로서 항상 염두 해야 할 진리이다. 또한 선의 생동감과 필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을 그릴 때는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질감을 생각하고, 선 그 자체의 탄력을 주어 생동감 있는 필치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선이라 하겠다. 그리고 색은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며, 맑고 깊은 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채의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채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예술이 현대에 사는 나에게 새삼 감격스럽게 전

해져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좋은 옛 그림을 토대로 연마하고 분석하여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예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림1. 이창민, <이이장(李彝章:1798~1764) 상>(종가 소장) (임모), 2003,  
비단채색, 142×8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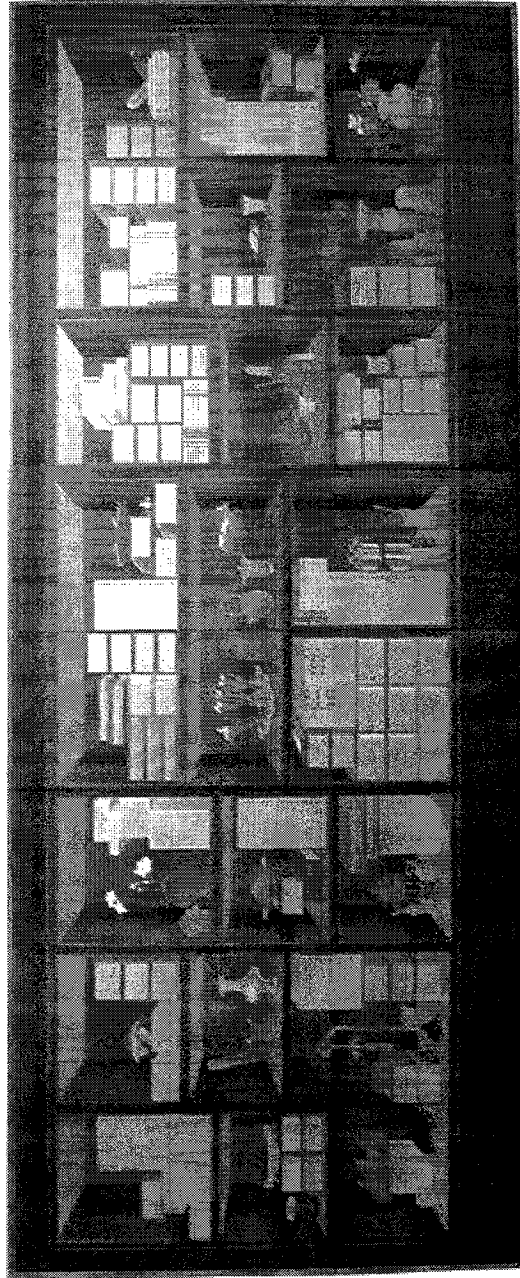


그림 2. 이창민,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호암미술관 소장) (임모), 2004, 종이채색, 420×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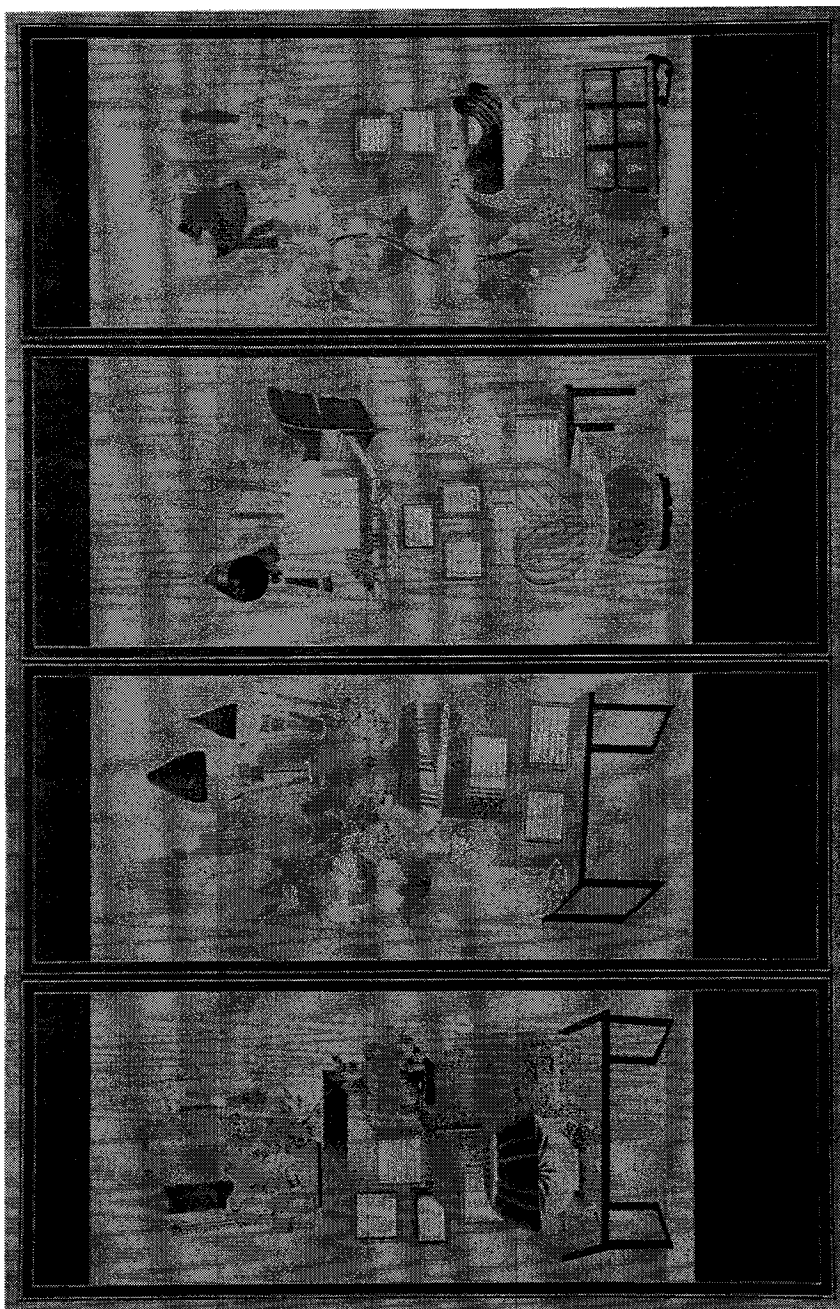


그림 8. 이창민,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개인 소장), 2005, 종이채색, 172×90cm

## 참고문헌

### 1.참고저서

계명대학교 박물관, 『민화』, 예경, 2004

윤열수, 『민화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서울역사박물관, 『반갑다! 우리민화』, 2005

### 2.참고논문

박소민, 「조선후기 초상화의 제작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심은, 「조선시대 책가도의 기원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해진, 「십장생도 십곡병 임모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함보경, 「수월관음도 임모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ABSTRACT

## A study of artistic replication of the "Munbang Chaekado"(the pictures of the books)

Lee, Chang-Min  
Major in Korean Traditional Color Painting  
Dept. of Painting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It seems that the advent of "Munbang Chaekado" appeared as Yangban (the two upper class of Late Joseon) circles expanded along with the economic revival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as the interest in foreign civilization augmented by dint of the exchange of the Ching Dynasty.

The paintings of new genre took place on account of the curiosity about Chinese decorations and the technique of the Western paintings. However, people came to draw our unique "Munbang Chaekado" in which our consciousness of beauty was reflected. In other words, "Munbang Chaekado" used to be a part of palace paintings, and later showed an aspect of folk paintings, too. And people induced the technique of the Western paintings and developed them, and then the Western paintings are born again so that they can fit for our consciousness of beauty.

The works of copy show folksy essence strikingly, but show the aspect in which orthodox paintings and folk paintings, the techniques of the Western paintings,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Oriental beauty are

mixed. The adequate mixing of folksy symbolism and the thing suffused with literary energy makes us feel peculiar attraction of "Munbang Chaekad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lace "Munbang Chaekado" and folksy paintings "Munbang Chaekado" is that the palace "Munbang Chaekado" is that first of all, it is a paintings which realistically expressed refined and elegant feeling and that it is a picture in which people feel literary energy. "Munbang Chaekado" belonged to decorative paintings even in the palace, but it was painted as a decorative painting which gives static and magnificent feeling rather than as flourishing side. On the other hand, folksy "Munbang Chaekado" pursues decorative nature a lot, and on many occasions it gives flourishing, but simple feelings, and it shows an aspect in which our consciousness of beauty which utilized multi-vision dots are attached more than the palace paintings.

The writer formerly copy made a study of Lee, Hyung-Rok's Chaekado (Ho Am Gallery keeps it) which belongs to the context of the palace paintings. However, this thesis made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stream of "Munbang Chaekado" more widely by doing copy, the "Munbang Chaekado" of different aspect.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t outlines the meaning, the purpose of study, and the style of expression.

Second, it explains the transcription process of the original painting in copy process.

Third, it explains understanding about line drawing through line practice.

Fourth, it explains the process of producing color table aimed at finding the color sensation and pigment of original paintings.

Fifth, it explains, as a part, the production technique of production through real copy.

Through this thesis, the writer expects that it will be an occasion of seeking a direction of traditional deep color paintings including "Munbang Chaekado".